

국내에서 간행된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의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in English-Language Journals of Korean Studies Published in Korea

김 민 정 (Min Jung Kim)*

이 혜 은 (Hye-Eun Lee)**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간행된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A&HCI 및 SCOPUS에 등재된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 4종으로, *Korea Journal* 768편,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66편,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85편, *Acta Koreana* 321편 등 총 1,840편을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저자 분석, 저자 키워드 빈도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학 연구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세 영역 모두 2000년 이후 출판 논문의 수와 범위가 크게 성장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현대, 조선 후기, 근대 일제강점기 순이었다.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은 국내 소속 기관의 저자가 73.34%였으나, 국외 소속 기관 저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저자 키워드는 'Korea'(41번), 'Buddhism'(20번), 'Koreanwar'(18번), 'Joseon'(18번) 등이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토픽모델링에서는 '한국 문화, 문화 전파 현상', '한국 현대 정치사',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 '일제강점기 시대상', '한국 고유 종교철학', '한국 고대사' 등 총 6가지의 토픽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국제적인 한국학 학술 커뮤니티의 관심사와 연구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English-language journals in Korean studies published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four English journals in Korean studies indexed in A&HCI and SCOPUS. A total of 1,840 were selected, including 768 articles of the *Korea Journal*, 466 articles of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85 articles of the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and 321 articles of the *Acta Koreana*, in connection with content analysis, author analysis, author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In results, the domain research of Korean studies is Humanities, followed by Social Science, and Arts and Kinesiology. These three sector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publishing numbers since 2000. The subject period of the study is in the order of the modern period, late Joseon,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Authors from domestic affiliations made up 73.34% of the total, but the proportion of authors belonging to foreign institutions continued to increase. As for author keywords, 'Korea'(41), 'Buddhism'(20), 'Koreanwar'(18), and 'Joseon'(18) were derived as top keywords. In topic modeling, six topics were identified: 'Korean culture, cultural transmission,' 'Korean modern political history,' 'Korean social democratization process,'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religious philosophy,' and 'Korean ancient history.'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interests in and research areas of the recent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of Korean studies.

키워드: 한국학, 학술지, 영문학술지

Korean Studies, academic journal, English-Language Journal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kimmj0213@sookmyung.ac.kr)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elee@sookmyung.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3년 2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2월 2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145-166,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1.145>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개념인 ‘한국학’은 ‘조선학(朝鮮學)’, ‘본국학(本國學)’, ‘국학(國學)’ 등 역사적 단계마다 혹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발전해 왔다(전성운, 2010; 김경일, 2020). 용어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한국학 연구의 지향이 궁극적으로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러한 한국학 세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내에서는 영문으로 쓰인 한국학 저널을 발간하여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 간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문학술지는 연구자 사이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Salager-Meyer, 2014). 학술지의 출판 언어는 독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다수가 읽을 수 있는 언어인 영어로 출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신은자, 최희운, 서태설, 2015; Kirchik, Gingras, & Larivière, 2012). 따라서 국내에서는 영문으로 한국학 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의 공생과 토론의 장을 만들고, 한국이라는 지역적 조건 때문에 파생되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황재문, 2021). 또, 국내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는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국외 한국학 학계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0).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 중 영문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학은 국어학, 국문학, 국사학, 한국철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각기 다른 학문으로 존재했으나 최근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종합학문으로 재인식되고 있으며(김승환, 2010) 한국학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송민선, 2015). 이때 한국학 연구의 동향 분석은 한국학의 범주를 확립하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특히 영문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적인 한국학 학술 커뮤니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연구범위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학의 세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내에서 간행한 영문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학 연구가 어떤 주제와 범위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내용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방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간행한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 중 A&HCI 및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과 주제, 저자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1.2 이론적 배경

1.2.1 한국학의 개념과 정의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은 용어와 범주에 있어 역사적 시기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우리 언어, 민속, 자

연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조선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전성운, 2010) 1899년 황성신문에 처음으로 '본국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 일제 치하 식민 지배 및 교육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서 민족주의적 학문 연구인 '국학'으로 이어졌다(김경일, 2020).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현재의 '한국학'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술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 대학에서 외국어로 가르치는 한국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외한국학'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한국학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김종명, 2006). 한편, 일반적으로 'Korean Studies'로 영역되는 한국학이 유럽, 일본 등지에서 'Koreanology'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학이 논리(logic)로서의 학문적 체계와 기반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김승환, 2010).

한국학의 범주에 대해서 강성위(1980)는 '실제의 한국에 대한 학문', '한국에 있어서의 학문', 그리고 '바람직한 한국에 대한 학문'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며 한국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박이문(2006)은 한국학을 '한국과 관련된 모든 현상, 사건, 사상, 존재들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정의하였으며, 정광(2007) 역시 한국학의 범주를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한국인의 인류학적 연구와 한민족과 그들의 국가인 한국에 대한 학문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종합 연구'로 인식하는 등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앞선 광의의 한국학과 더불어 협의의 한국학 즉,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개념을 정립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여기서 지역학

으로서의 한국학이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백영서(2007)는 앞선 연구자들이 주장한 광의의 한국학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바깥에서 또는 밖으로부터의 한국을 연구하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협의의 한국학 개념을 정리하면서, 오늘날의 한국학에는 광의의 조선학/국학의 내력과 협의의 Korean Studies라는 두 개의 흐름이 겹쳐 있다고 하였다. 황폐강(1993) 역시 '본국의 한국학'과 '국외의 한국학', 즉 한국인이 한국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사상을 연구하는 조선학/국학의 개념과 함께 외국인이 한국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사상을 연구하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두 가지 개념으로 한국학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성운(2010)도 한국학이란 '국학'이면서도 '지역학'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한국학이 한민족과 그 국가의 특수성, 개별성을 강조하는 국학으로서 역할도 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승환(2010)은 한국학에 있어 주체인식과 타자인식이라는 두 개념의 균형을 가지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김진량(2019)도 한국학 개념을 '국학으로서의 한국학',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으로 바라보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현지화의 관점에서 '해외한국학' 단계를 추가하며, 한국학이 결국 국학으로서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학문적 실천으로 재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상되며 연구자마다 그 범주가 다르게 정의되는 한국학에 있어 본 연

〈표 1〉 한국학 개념을 정의한 선행연구

한국학 범위	연구자	정의
광의	강성위(1980)	‘실제의 한국에 대한 학문’, ‘한국에 있어서의 학문’, ‘바람직한 한국에 대한 학문’
	박이문(2006)	한국과 관련된 모든 현상, 사건, 사상, 존재들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 학문
	정 광(2007)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한국인의 인류학적 연구와 한민족과 그들의 국가인 한국에 대한 학문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종합 연구
광의 + 협의	황패강(1993)	‘본국의 한국학’과 ‘국외의 한국학’
	백영서(2007)	‘한국을 주제 또는 대상으로 하는 학문 내지 연구분야’와 ‘한국의 바깥에서 또는 밖으로부터의 한국을 연구하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korean studies)’
	전성운(2010)	한민족과 그 국가의 특수성, 개별성을 강조하는 국학,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김승환(2010)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이라는 두 개념의 균형을 가지는 통섭과 학제 간의 시각이 필요
	김진량(2019)	‘국학으로서의 한국학’,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현지화의 관점에서 ‘해외한국학’

구와 같이 연구 동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학 연구범위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학의 개념을 공고히 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한국학 세계화의 관점에서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여러 국가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한국학 연구 동향을 한국학 강좌나 학과의 개설, 한국학 학회나 연구소의 설치 현황,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분석한 연구로 허성태, 임영언(2016)은 일본 내 한국학회의 활동 현황과 한국어 및 한국학 전문 교육기관 개설 현황을 분석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학의 연구실태를 살펴보았다. 김영(2009)은 영국의 런던대학, 셰필드대학, 옥스퍼드대학, 캠브리지대학 등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학연구소 설치 현황과 연구원 구성, 교과목 수, 세미나 주제, 워크숍 개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영국에서의 한국학 동향을 설명하였다. 이주연(2017)은 중동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국학 학과

및 연구기관과 이들의 커리큘럼 현황 조사를 통해 한국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한국학 전망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학술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현주(2010)는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인 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동방학지』의 연구 동향을 크게 ‘동방학연구소’ 시절(1953~77년)과 ‘국학연구원’ 시절(1977~현재)로 나누고, 이 두 시기를 재정 지원을 비롯한 내외적 조건에 따라 다시 네 시기로 나누어 이 네 시기 각각에 대해 논문의 학문 분야, 연구시기, 필자 소속 대학,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기에서 4기로 지나오면서 한국 연구의 비중이 줄고, 반대로 동아시아, 북한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 연구 내에서는 역사, 철학, 문학 분야의 증가와 어학 분야의 감소 경향이 도출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연구가 축소되었으며, 식민지시기와 해방 후에 대한 연구 비중이 확대되었다. 또, 저자의 소속은 연세대학교 소속이 점차 늘어났고, 연세대 내에서는 사학과

소속 교수 및 박사 취득자가 증가한 대신 국문과, 철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연구자 참여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문·사·철 중심의 연구주제 분포 경향과 저자 소속의 연세대학교 집중화 현상 등 「동방학지」의 폐쇄성을 그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민희(2016)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중·동유럽한국학회(CEESOK)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최근 한국학이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종교, 역사, 생활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적 관심을 표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 문학 연구의 상대적 약화와 북한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연구 대상의 확대 경향을 유럽의 한국학 연구 경향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문헌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타 학문 분야의 지적구조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혜진(2020)은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통해 한국학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김은주, 노성원, 남태우(2016)는 네트워크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정신의학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는 지적구조를 규명하였다. 정지나, 정힘찬, 김용(2017) 역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재난정보와 관련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학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한국학 연구 상황을 분석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한국학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계량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나 영문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내용 분석 중심 연구와 달리 정량적 방법론을 토대로 영문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학술지의 선정을 위해 Clarivate Analytics사의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서 카테고리를 ‘Arts&Humanities’, ‘Interdisciplinary’, 세부 주제를 ‘Area studies’, ‘Asian studies’, 연구지역을 ‘South Korea’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9종의 학술지가 검색되었고,¹⁾ 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분야만을 다루지 않고 한국학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지인 Korea Journal,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Acta Koreana 4종을 선정하였다.

1)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5종의 학술지와 제외 이유는 다음과 같다.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의학), Journal of Korean Religions(종교학), Korea Observer(정치외교학), Pacific Focus(정치외교학)의 경우 한국 연구 중 특정 주제 분야만을 다루고 있어 제외하였고,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지역학)의 경우 1945년 이전 시기의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당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학술지

학술지명	발행기관	창간 연도	수록 편수	연구 대상
Korea Journal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현재)	1961	895*	768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686	466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8	496	285
Acta Koreana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8	539	321
합계			2,616	1,840

* 1999-2021년

연구 대상 논문은 각 학술지의 창간 연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중 ‘Editorial note’, ‘Book Review’ 등의 비정규논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논문’(article)이라고 명시된 것을 수집하였다. 또한 1961년 창간된 Korea Journal은 1998년까지는 논평, 칼럼, Book Review 등이 주를 이루어 저자 정보 등 학술지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1999년-2021년까지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Korea Journal 768편,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66편,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85편, Acta Koreana 321편 등 총 1,840편을 선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앞서 선정한 연구 대상 학술지 4종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연구 대상 학술지 4종의 창간 연도부터 2021년까지 발간된 논문을 수집하여 제목, 저자 정보(소속기관, 소재지, 신분, 공저자 수), 내용 정보(주제 분야, 연구 대상시기), 키워드, 초록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이때, 수집한 논문은 ‘Editorial note’, ‘Book Review’ 등의 비정규논문이 아닌 ‘논문’(article)이라고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술지별 연구자의 특성과 논문의 내용 범주를 분석하였다. 연구자 특성은 저자의 소속기관, 소재지, 신분 분포를 통해 파악하였고, 논문 발간 당시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내용 범주는 논문의 주제 분야와 연구 시대 분포를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주제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제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의학 관련 주제를 다루는 논문인 “Bodies and Viruses: Biomedicalizing Hepatitis B in Shaping South Korea’s Nationhood”, 건축 관련 주제를 다루는 논문인 “Architectural Design of Wooden Building during the 15th century: Legacy and Beginning” 등을 ‘기타’로 분류한 것이다. 또, 시대분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대분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가 여러 시대에 걸쳐있는 경우, 상위의 범위에 있는 시대로 분류하였다.

셋째, 4종의 한국학 영문학술지에서 다루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시각화 도구인 Textom(이하 텍스트롬)을 이용하여 논문 저자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대상 범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각 학술지

논문의 저자 키워드로 하여 키워드 수집, 정제 및 형태소 분석, 텍스트마이닝(단어 빈도분석), 시각화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정제 및 형태소 분석은 1차적으로는 텍스트롬에서 분석언어를 '영어', 분석품사를 '단순품사(명사)'로 설정하여 정제하고, 정제된 데이터의 N-gram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차 정제 과정을 거쳤다. N-gram 분석은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밀집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동시에 출현한 키워드를 보여준다. 따라서 'K'와 'pop' 또는 'Kim'과 'ilsung' 등 띄어쓰기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분석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여 'Kpop', 'Kimilsung' 등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빈도수 분석에 중복되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정제된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며 불용어와 띄어쓰기를 삭제하고, 동의어, 유사어 등에 대한 통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최종 데이터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50개의 주요 키워드와 빈도수, 백분율 값을 산출하였다. 또, 4종의 학술지별 상위 10개의 주요 키워드를 각각 산출하고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이를 통해 학술지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전반적인 국제 한국학 학술 커뮤니티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분석 도구인 NetMiner 4.0(이하 넷마이너)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실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역시 앞선 저자 키워드 빈도분석과 같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이를 정제한 후에 넷마이너에 가져오기(data import)하고 토픽의 수를 달리하여 토픽 모델링을 반복 수행한 후, 그 결과값을 토대로

최적의 토픽 수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10개로 토픽 수를 설정하여 토픽모델링을 반복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6개를 최종 토픽 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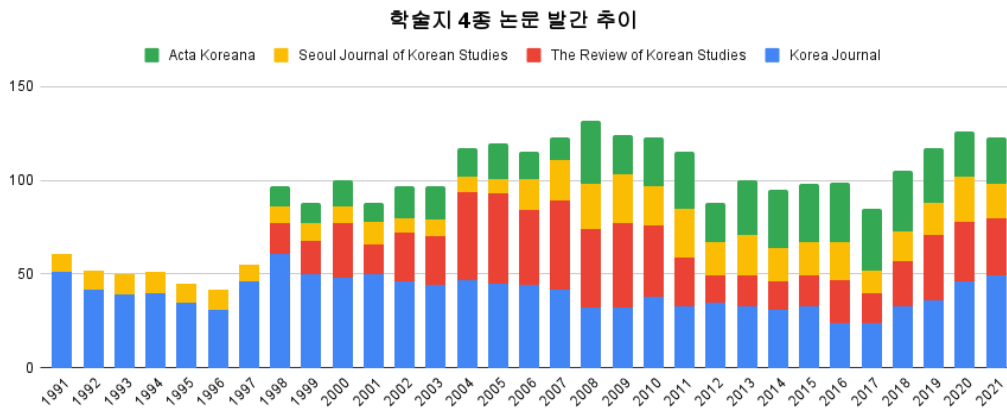
3. 연구 결과

3.1 학술지 기본 현황

Korea Journal은 1961년 9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간한 월간지로 초기에는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정치, 경제, 외교 현안을 다루는 단순 시사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 1991년 계간지로 전환하였고, 1999년부터는 저자 정보를 수록하는 등 현재와 같은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춘 전문 학술지로 변화하였다. 연간 발행 논문은 1991년 51편, 2000년 48편, 2010년 38편, 2020년 46편으로 2001년 3월 미국 Thomson Reuters사의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고, 2008년부터는 Elsevier사의 SCOPUS에도 등재되었다. 2018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다.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1998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간지로 창간하였고 2002년 반연간지로 전환되었다. 연간 발행 논문은 1998년 16편, 2000년 29편, 2010년 38편 등 증가해왔다. 이후 2012년부터 20편 이하로 감소하다 2019년 다시 35편, 2020년 32편, 2021년 31편이 발행되었다. 현재 SCOPUS와 ESCI(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서 색인되고 있다.

1988년 12월에 창간된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



〈그림 1〉 출판 연도별 한국학 관련 논문 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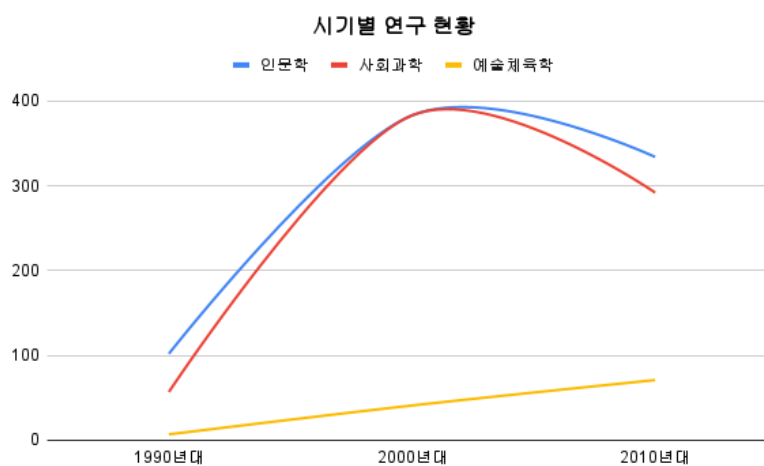
서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영문학술지로, 1988년 10편, 2000년 9편, 2005년 8편 등 연간 10편 내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2007년 22편, 2010년 21편, 2015년 18편, 2020년 24편이 발행되었다. SCOPUS와 ESCI에 색인되고 있다.

Acta Koreana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한국학 학술지이며, 1998년 창간되었다. 2000년 14편, 2005년 19편, 2010년 26편으로 연간 수록 논문이 증가하여 왔으며,

2012년 A&HCI와 SCOPUS에 등재되면서 이후 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2015년 31편, 2016년 32편, 2017년 33편, 2018년 32편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3.2 내용분석

학술논문의 주제 분야는 인문학 분야 논문이 888건으로 48.26%, 사회과학 분야 논문이 792



〈그림 2〉 시기별 연구 현황

〈표 3〉 연구 주제 분야

대분류명	중분류명	Korea Journal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Acta Koreana	전체	
인문학	사전학	0	0	2	0	2	888 (48.26)
	역사학	104	106	59	26	295	
	철학	61	25	20	40	146	
	종교학	51	28	30	46	155	
	언어학	1	1	1	1	4	
	문학	2	1	2	0	5	
	한국어와 문학	70	73	66	57	266	
	통역번역학	1	1	1	12	15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112	55	35	30	232	792 (43.04)
	경제학	25	12	10	2	49	
	경영학	5	1	0	2	8	
	무역학	1	2	0	3	6	
	사회학	134	59	16	8	217	
	사회복지학	11	2	4	0	17	
	지역학	4	3	0	2	9	
	인류학	44	27	10	10	91	
	교육학	8	12	1	14	35	
	법학	10	8	1	2	21	
	행정학	11	0	0	0	11	
	정책학	5	0	4	1	10	
	지리학	13	5	2	4	24	
	국제/지역개발	5	3	5	1	14	
	관광학	3	0	0	0	3	
	신문방송학	27	6	2	3	38	
	군사학	0	0	2	3	5	
	심리과학	2	0	0	0	2	
예술체육학	음악학	1	6	3	12	22	140 (7.61)
	미술	16	11	7	17	51	
	디자인	2	0	0	0	2	
	의상	0	0	0	1	1	
	사진	0	1	0	0	1	
	연극	2	3	0	0	5	
	영화	23	10	0	21	54	
	체육	1	0	0	2	3	
	무용	1	0	0	0	1	
기타		12	5	2	1	20(1.09)	
계		768	466	285	321	1,840(100.00)	

〈표 4〉 연구 대상 시기

		Korea Journal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Acta Koreana	전체 (%)
선사	석기	1	1	3	1	13
	청동기	0	6	1	0	(0.71)
고대	초기국가시대	2	6	2	0	91
	삼국시대	20	20	11	13	(4.95)
	남북국시대	2	0	10	5	
고려	고려전기	0	7	13	6	54
	고려후기	3	10	9	6	(2.93)
조선	조선전기	20	35	16	15	334
	조선후기	75	54	57	62	(18.15)
근대	개항기	16	8	11	7	318
	대한제국기	9	7	7	14	(17.28)
	일제강점기	90	64	42	43	
현대	대한민국	530	248	103	149	1030 (55.98)
계		768	466	285	321	1840 (100.00)

건으로 43.04%로 이 두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예술체육학 분야의 논문은 140건으로 전체 논문의 7.61%이나 2001년-2005년 13건에서 2006년-2010년 2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1년-2015년 34건, 2016년-2020년 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역사학이 295건으로 16.03%, 한국어와문학이 266건으로 14.46%, 종교학이 155건으로 8.42%, 철학이 146건으로 7.93% 순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치외교학이 232건으로 12.61%, 사회학이 217건으로 11.79%, 인류학이 91건으로 4.95% 순이다. 예술체육학 분야에서는 영화가 54건으로 2.93%, 미술이 51건으로 2.77%, 음악학이 22건으로 1.20%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현대가 1,030건으로 55.98%, 조선이 334건으로 18.15%, 근대가 318건으로 17.28% 순이며, 세부적으로 조선 안에서

는 조선 후기 연구가, 근대 안에서는 일제강점기 연구가 많이 수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 학술 논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모두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논문 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인문학은 102건에서 383건으로, 사회과학은 57건에서 292건으로, 예술체육학은 7건에서 41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과학, 예술체육학은 2000년대에 이르러 논문의 양 증가뿐만 아니라 세부 연구영역도 확대되었다. 사회과학은 정치외교학, 사회학을 포함하여 11개 영역에서 연구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광학, 경영학, 무역학, 법학 등의 분야가 추가되어 총 17개 영역에서 논문이 발간되었다. 예술체육학은 1990년대에 미술, 음악 분야에서만 연구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 분야의 연구가 추가되었고, 2010년대에는 의상, 무용, 사진, 체육 등이 더해져 총 9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서 2010

년대로 들어오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각각 334건, 292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예술체육학은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3.3 저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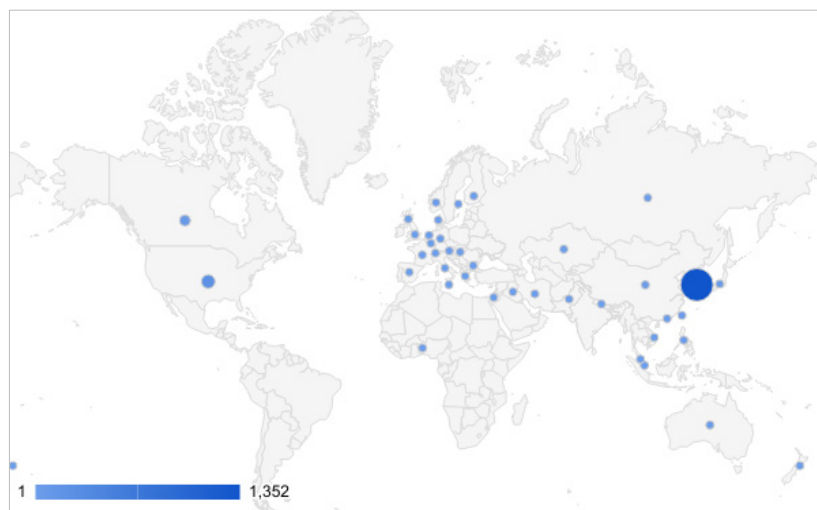
저자의 소속기관은 국내 기관이 1,352명, 73.48%,

국외 기관이 488명, 26.52%로 국외 기관소속 저자의 비율은 2001년-2005년 22.20%에서 2006년-2010년 26.52%, 2011년-2015년 24.50%, 2016-2021년에 들어 36.17%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국외 소속 저자의 비율뿐 아니라 국가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국외 기관소속 저자의 소재지는 총 488건 중 미국 212건, 캐나다 55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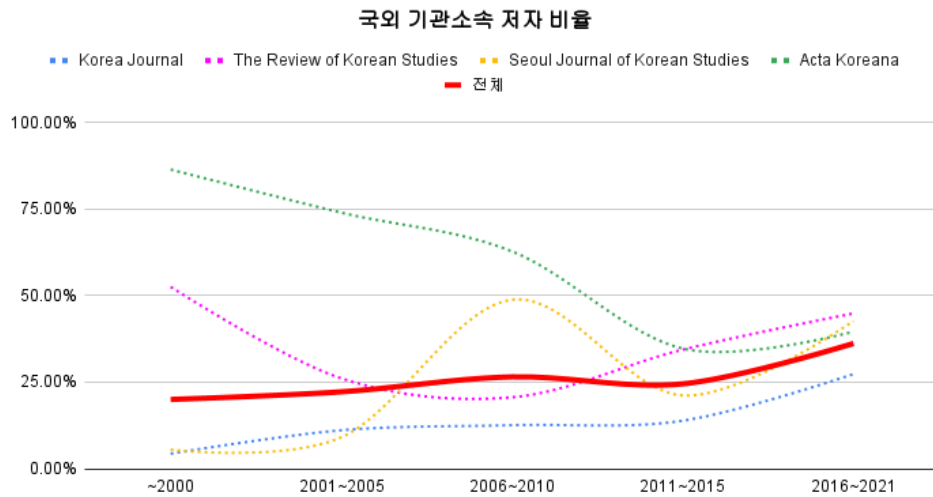
〈표 5〉 저자 분석

		Korea Journal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Acta Koreana	전체(%)
소속기관	국내	655	321	217	159	1,352(73.48)
	국외	113	145	68	162	488(26.52)
신분	교수	605	305	217	243	1,370(74.46)
	연구원	76	61	28	23	188(10.22)
	강사	49	56	19	24	148(8.04)
	대학원생	27	35	18	26	106(5.76)
	기타*	11	9	3	5	28(1.52)
저자 수	1인	679	443	274	302	1,698(92.28)
	2인	72	19	11	14	116(6.30)
	3인 이상	17	4	0	5	26(1.41)
계		768	466	285	321	1,840(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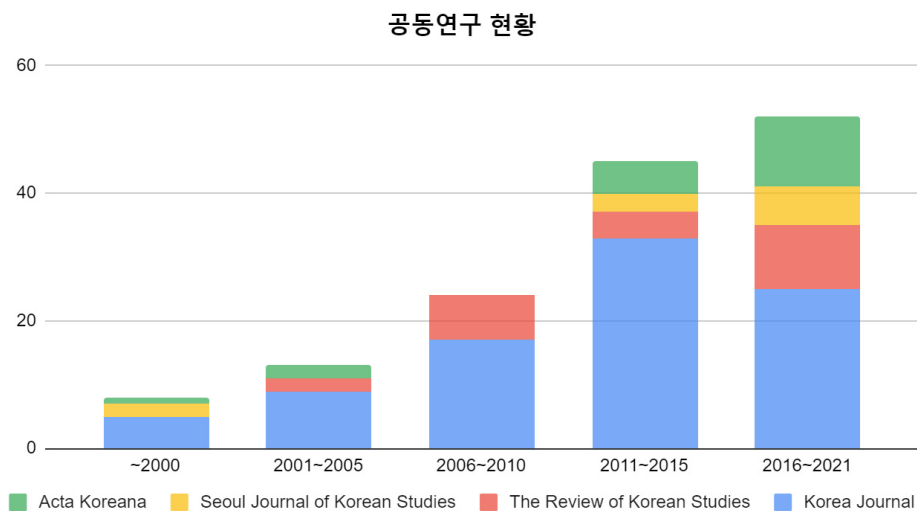
* 저자신분 정보 없음



〈그림 3〉 저자 소속기관 국가별 분포



〈그림 4〉 국외 기관소속 저자 비율



〈그림 5〉 공동연구 현황

31건, 영국 24건, 독일 2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2005년 14개 국가에서 2006년-2010년 17개, 2011년-2015년 20개, 2016-2021년 25개로 국외 소속 저자의 소재지가 다양화되었다.

저자 신분의 경우, ‘교수’가 1,370명, 74.46%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원’이 188명, 10.22%, ‘강사’

가 148명, 8.04%, ‘대학원생’이 106명, 5.76% 순이었다. 신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하였으며 28명, 1.52%이다.

논문 당 저자 수는 1인 저자 논문이 1,698개, 92.28%, 2인 저자 논문이 116개, 6.30%, 3인 이상 저자 논문이 26개, 1.41%이다. 학술지 간

편차는 있으나 공동연구는 2001년-2005년 13건에서 2006년-2010년 24건, 2011년-2015년 45건, 2016년-2020년 5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분야별로는 공동연구로 작성된 총 142건의 논문 중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이 100건으로 70.42%, 인문학 분야 논문이 32건으로 22.54%, 예술체육학 분야 논문이 8건으로 5.63%이다. 즉,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빈도분석

2012년-2021년 10년간 저자 키워드의 빈도 분석 결과, 'Korea'가 41번으로 가장 많았고, 'Buddhism'(20번), 'Koreanwar'(18번) 'Joseon'(18번), 'Nationalism'(17번), 'Neoconfucianism'(17번) 순이었다.

학술지별 상위 10위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Korea Journal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Candlelightprotest'(10번), 'Kpop'(7번),

〈표 6〉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 4종 빈도수 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Korea	41	1.096	26	Parkchunghee	7	0.187
2	Buddhism	20	0.535	27	Kpop	7	0.187
3	Koreanwar	18	0.481	28	Koryŏ	7	0.187
4	Joseon	18	0.481	29	Catholicism	6	0.16
5	Nationalism	17	0.455	30	Asianism	6	0.16
6	Neoconfucianism	17	0.455	31	Socialdarwinism	6	0.16
7	Confucianism	17	0.455	32	Democracy	6	0.16
8	Japanesecolonialperiod	15	0.401	33	Kimilsung	6	0.16
9	Northkorea	15	0.401	34	Joseonbuddhism	6	0.16
10	Translate	11	0.294	35	Modernization	6	0.16
11	Anchunggŭn	10	0.267	36	Educate	6	0.16
12	Coldwar	10	0.267	37	Zhuxi	6	0.16
13	Silla	10	0.267	38	Jeongjo	5	0.134
14	Candlelightprotest	10	0.267	39	Democratization	5	0.134
15	Globalization	10	0.267	40	Landreform	5	0.134
16	Toegyeyihwang	9	0.241	41	Joseondynasty	5	0.134
17	Japanesecolonialism	9	0.241	42	Politic	5	0.134
18	Modernity	9	0.241	43	Orientalism	5	0.134
19	Koreanculture	8	0.214	44	Feminism	5	0.134
20	Women	8	0.214	45	Peaceintheeast	5	0.134
21	Koreancinema	8	0.214	46	People	5	0.134
22	Samguksagi	7	0.187	47	Mingloyalism	5	0.134
23	Koreanliterature	7	0.187	48	Historiography	5	0.134
24	Eastasia	7	0.187	49	Multiculturalism	4	0.107
25	Anticommunism	7	0.187	50	Meoliberalism	4	0.107

〈표 7〉 빈도분석 결과 및 워드클라우드

	순위	단어	빈도(%)	워드클라우드
Korea Journal	1	Korea	18(1.161)	
	2	Korean War	11(0.71)	
	3	Candlelightprotest	10(0.645)	
	4	DasanJeongYakyong	9(0.581)	
	5	Confucianism	7(0.452)	
	6	Kpop	7(0.452)	
	7	Cold War	6(0.387)	
	8	Korean culture	6(0.387)	
	9	Hallyu	6(0.387)	
	10	Globalization	6(0.387)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	Buddhism	4(0.569)	
	2	Korea	4(0.569)	
	3	Korean war	4(0.569)	
	4	Neoconfucianism	4(0.569)	
	5	Japanese colonial period	4(0.569)	
	6	Politic	3(0.427)	
	7	Translate	3(0.427)	
	8	Feminism	3(0.427)	
	9	North Korea	3(0.427)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	Korea	11(1.685)	
	2	Joseon	6(0.919)	
	3	Koryŏ	6(0.919)	
	4	Buddhism	6(0.919)	
	5	North Korea	6(0.919)	
	6	Silla	5(0.766)	
	7	Samguksagi	5(0.766)	
	8	Landreform	5(0.766)	
	9	Archaeology	4(0.613)	
	10	Cold War	3(0.459)	
Acta Koreana	1	Anchunggŭn	10(1.063)	
	2	Nationalism	9(0.956)	
	3	Korea	9(0.956)	
	4	Neoconfucianism	7(0.744)	
	5	Asianism	6(0.638)	
	6	Joseon	6(0.638)	
	7	Confucianism	5(0.531)	
	8	Buddhism	5(0.531)	
	9	Japanese colonial period	5(0.531)	
	10	Catholicism	5(0.531)	

'Koreanculture'(6번), 'Hallyu'(6번), 'Globalization'(6번) 등의 단어가 다수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Korea Journal이 다른 학술지들보다 한국의 사회 이슈나 문화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의 경우, 'Koreanwar'(4번), 'Politic'(3번), 'Feminism'(3번), 'NorthKorea'(3번) 등의 단어가 상위에 있어 사회과학 분야, 특히 정치학 관련 분야의 연구가 많이 수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의 경우, 'Joseon'(6건), 'Koryo'(6건), 'Silla'(5건), 'Samguksagi'(5건), 'Archaeology'(4건) 등의 단어가 빈도수 상위에 있으며 한국학 연구의 전통적인 주력 분야인 역사학 논문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Acta Koreana는 역사학, 사회학, 종교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수록되고 있었다.

3.5 토픽모델링

토픽 1에서는 'globalization', 'Kpop', 'Hallyu', 'KoreanWave', 'worldview' 등의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 영역은 한국의 새로운 문화와 문화 전파에 관련한 영역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은 2012년부터 등장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관련 논문이 발행되고 있고, K팝,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문화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박찬욱, 봉준호, 임권택 등의 영화를 분석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성장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Kpop과 팬덤 문화를 다룬 논문도 토픽 1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음악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

회학, 신문방송학 분야에서도 게재되고 있었다. 토픽 2에는 'Korea', 'KoreanWar', 'Coldwar', 'Nationalism', 'NorthKorea'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주요 정치사, 특히 현대 정치사를 다룬 영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픽 3은 토픽 2와 중복되는 단어들이 다수 속하는 영역이지만, 'Democracy', 'Candlelightprotest', 'Anticommunism', 'Kimillsung' 등의 단어를 통해 정치 중에서도 민주화와 관련된 사회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둔 영역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토픽 4는 'Japanesecolonialperiod', 'Modernity', 'Education', 'Koreanculture', 'Japanesecolonialphotography' 등의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단어가 등장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원문을 확인해본 결과, 일제강점기의 문화, 사회상, 교육환경 등을 다룬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토픽 4의 주제는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다. 토픽 5에는 'Buddhism',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DasanJeongYakyong', 'ToegyeYiHwang', 'Zhuxi' 등의 단어가 추출되었는데, 불교, 유교, 그리고 정약용, 이황, 주자 등 학자들이 속하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철학에 관한 영역임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 토픽 6에는 'Silla', 'Samguksagi', 'Archaeology' 등이 추출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이 중에서도 특히 고대사에 관한 영역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4종의 학술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국제적인 한국학계에서 해당 이슈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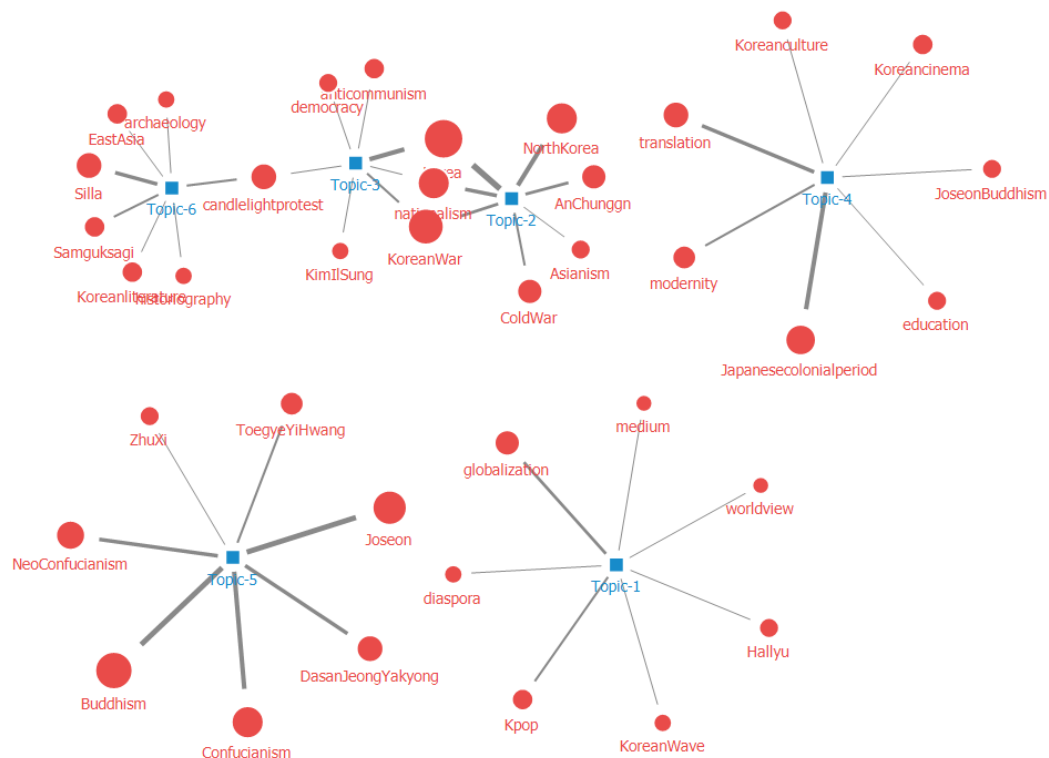
각 토픽의 비중을 살펴보면 토픽 1은 117개로 18.06%, 토픽 2는 109개로 16.82%, 토픽 3은 92개로 14.02%, 토픽 4는 111개로 17.13%,

토픽 5는 101개로 15.59%, 토픽 6은 118개로 18.21%로 6개의 영역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토픽 1과 토픽 6이 상대적으로 약간의 우위에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의 전통적인 영역

인 역사학으로 대표되는 토픽 6과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학 분야의 토픽 1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주도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한국학 동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8〉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1	Globalization	Kpop	Hallyu	KoreanWave	Dispora
2	Korea	NorthKorea	Nationalism	KoreanWar	AnChungggn
3	Korea	KoreanWar	Democracy	Candlelightprotest	Nationalism
4	Japanese colonialperiod	Translation	Modernity	Education	Koreanculture
5	Buddhism	Joseon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DasanJeongYakyong
6	Silla	Samguksagi	Candlelightprotest	EastAsia	Koreanliterature



〈그림 6〉 토픽별 주요 단어 시각화

〈표 9〉 토픽별 주제 및 비중

Topic	주제	건수(비율)	주요 키워드
Topic-1	한국 문화, 문화 전파 현상	117(18.06)	Globalization, Kpop, Hallyu, KoreanWave, Worldview
Topic-2	한국 현대 정치사	109(16.82)	NorthKorea, KoreanWar, Coldwar, Nationalism, Asianism
Topic-3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	92(14.02)	Democracy, Candlelightprotest, KimJisung, Anticommunism, Nationalism
Topic-4	일제강점기 시대상	111(17.13)	Japanesecolonialperiod, Education, Modernity, Koreanculture, Japanesecolonialphotography
Topic-5	한국 고유 종교철학	101(15.59)	Buddhism,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DasanJeongYakyong, ToegyeYiHwang, Zhuxi
Topic-6	한국 고대사	118(18.21)	Silla, Samguksagi, Archaeology, Historiograph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 4종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관심사와 연구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HCI 및 SCOPUS에 등재된 한국학 저널 중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지 4종을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저자 분석, 내용 분석, 주요 단어 빈도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기관소속 연구자의 비율과 소속 기관 소재지의 범위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총 1,840건의 논문 중 26.52%에 해당하는 488건이 국외 기관소속 저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국외 기관소속 저자 비율은 2001년-2005년 22.20%, 2006년-2010년 26.52%, 2011년-2015년 24.50%, 2016-2021년 36.17%로 증가하였다. 소속 기관의 소재지 역시 2001년-2005년 14개 국가에서 2006년-2010

년 17개, 2011년-2015년 20개, 2016-2021년 25개로 다양화되었다. 이는 국외 대학 한국학 전공 설치의 증가 추세와 함께 연관 지어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한국학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은 55개국 632개였으나(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DB²⁾를 보면 현재 107개국 1,408개 대학으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이 중 576개 대학에서 단순 교양 강좌가 아닌 한국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외 소재 저자들의 한국학 논문 작성 증가의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한국학 안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이 다수 작성되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 논문은 총 888건으로 48.26%를 차지하며 세부적으로는 역사학이 295건으로 16.03%, 한국어와문학이 266건으로 14.46%로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분야 논문은 총 792건으로 43.04%이며, 이 안에서는 정치외교학이 232건으로 12.61%,

2)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사회학이 271건으로 11.79%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 한편 140건으로 7.61%를 차지하는 예술체육학 분야는 1990년대 7건, 2000년대 41건, 2010년대 71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중 특히 영화가 54건으로 2.93%, 미술이 51건으로 2.77%로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

셋째, 시기적으로 현대 연구가 1,030건으로 55.98%, 조선 후기 연구가 248건으로 13.47%, 근대 일제강점기 연구가 239건으로 12.98% 이루어졌으며, 이들 시기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현주(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기의 모습이 한국학계의 주요 이슈인 것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넷째, 빈도분석 결과, 각 학술지 4종의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었다. Korea Journal의 경우, 최근 10년간 'Candlelightprotest'(10번), 'Kpop'(7번), 'Koreanculture'(6번), 'Hallyu'(6번), 'Globalization'(6번) 등의 단어가 다수 등장하여 최근 한국 사회 이슈와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의 경우에는 'Koreanwar'(4번), 'Politic'(3번), 'Feminism'(3번), 'NorthKorea'(3번) 등의 출현으로,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도 정치학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고,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는 'Joseon'(6건), 'Koryo'(6건), 'Silla'(5건), 'Samguksagi'(5건),

'Archaeology'(4건) 등의 단어가 등장하여 인문학 분야 중에서 역사학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토픽모델링의 결과, 총 토픽은 6가지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 토픽 1이 18.06%, 토픽 6이 18.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토픽 1은 'Globalization', 'Kpop', 'Hallyu', 'KoreanWave', 'Worldview' 등 최근 한국의 문화와 문화 전파 현상에 관한 영역이었으며, 토픽 6은 'Silla', 'Samguksagi', 'Archaeology' 등이 추출되어, 한국 고대사에 관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인문학 분야 그 중 특히 역사학 분야의 연구가 한국학계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 한국학 학술 커뮤니티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학 저변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한국학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한국학 분야 영문학술지를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학 관련 장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학 분야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참고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성위 (1980). 한국학의 개념과 논리의 문제들. 한국학, 3(3), 32-38.
- 국립중앙도서관 (2020).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21.
- 김경일 (2020). 한국의 근대 형상과 한국학: 비교 역사의 시각.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승환 (2010). 한국학의 갈래와 개념. 배달말, 47, 283-307.
- 김영 (2009).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21, 419-440.
- 김은주, 노성원, 남태우 (2016). 정신의학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지적구조 네트워크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1), 53-84.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053>
- 김종명 (2006). 국내의 “해외한국학” 교육: 현황·과제·방향. 아태연구, 13(1), 105-128.
- 김진량 (2019).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2(1), 283-307. <https://doi.org/10.25024/ksq.42.1.201903.283>
- 김현주 (2010). 『동방학지』를 통해 본 한국학 종합학술지의 궤적. 동방학지, 151, 49-108.
- 김혜진 (2020).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통한 한국학 지식구조 파악: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차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179-200. <https://doi.org/10.16981/kliiss.51.1.202003.179>
- 박이문 (2006). 학문으로서 한국학의 개념과 방법론 및 지표. 韓國學論集, 40, 5-15.
- 백영서 (2007). 인문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길: 이념과 제도. 한국학연구, 17, 41-55.
- 신은자, 최희운, 서태설 (2015). 해외 영향력 확산을 위한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KoreaScience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59-177.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159>
- 송민선 (2015).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25-157.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125>
- 이민희 (2016).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방향: 중·동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CEESOK)를 중심으로. 어문학, 134, 105-136.
- 이주연 (2017). 중동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3, 263-285. <https://doi.org/10.17792/kcs.2017.33.263>
-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17-337. <https://doi.org/10.17790/kors.2010.32.317>
- 정광 (2007). 해외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의 전망. 국어교육연구, 20, 7-43. <https://doi.org/10.17313/jkorle.2007.20.7>
- 정지나, 정힘찬, 김용 (2017).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정보와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67-9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67>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2023). 세계 한국학현황 지도. KF통계센터.

출처: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서울: 을유문화사.

허성태, 임영언 (2016).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전망 고찰. 日本文化學報, 71, 221-240.

<https://doi.org/10.21481/jbunka.71.201611.221>

황재문 (2021). English-Language Journals in Korean Studies: Their Significance and Challenges.

Korea Journal, 61(3), 15-38. <https://doi.org/10.25024/kj.2021.61.3.15>

황폐강 (1993). 한국학에 대한 서설적 고찰. 韓國學論集, 1, 11-58.

Kirchik, O., Gingras, Y., & Larivière, V. (2012). Changes in publication languages and citation practices and their effect on the scientific impact of russian science (1993-2010).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7), 1411-1419.

Salager-Meyer, F. (2014). Writing and publishing in peripheral scholarly journals: how to enhance the global influence of multilingual scholar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3, 78-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ik, Youngseo (2007). The direction that Koreanology studies in the humanities area should take in the future: ideology and institut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7, 41-55.

Chun, Sungwoon (2010). The conception of Korean study and its ways of globalizat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2, 317-337. <https://doi.org/10.17790/kors.2010.32.317>

Chung, Kwang (2007). On the view of disseminating Korean studies and teaching Korean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 7-43.

<https://doi.org/0.17313/jkorle.2007.20.7>

Heo, Song Tae & Yim, Youngeon (2016).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Koreanology and prospect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Culture, 71, 221-240.

<https://doi.org/10.21481/jbunka.71.201611.221>

Hwang, Jae-Moon (2021). English-language journals in Korean studies: their significance and challenges. Korea Journal, 61(3), 15-38. <https://doi.org/10.25024/kj.2021.61.3.15>

Hwang, Pae-gang (1993). A biblical review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1, 11-58.

Jeong, Jina, Jeong, himchan, & Kim, Yong (2017). Analysis of trends on disaster safety information based on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67-9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67>
- Kang, Seong-Ui (1980). The concepts and logic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3(3), 32-38.
- Kim, EunJu, Roh, Sungwon, & Nam, TaeWoo (2016).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networks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psychia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53-84.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053>
- Kim, Hea Jin (2020). Detection of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studies using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self-perception and others' percep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179-200.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179>
- Kim, Hyun Joo (2010). The course of academic journals of Korean studies through the Dong Bang Hak Chi: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THE DONG BANG HAK CHI, 151, 49-108.
- Kim, Jinryang (2019). A study on localization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cussed on the achievement cases of 'AKS SEED Project', Korean Studies Quarterly, 42(1), 283-307.
<https://doi.org/10.25024/ksq.42.1.201903.283>
- Kim, Jongmyung (2006). Education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in Korea: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3(1), 105-128.
- Kim, Kyung-il (2020). Modern Figuration of Korean and Korean Studies: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Seung Hwan (2010).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47, 283-307.
- Kim, Young (2009). The present state of Korean studies in U.K.. Center for Korean Studies, 21, 419-440.
- Korea Foundation (2018). 2018 haeoe Hangukhak paekso. Seoul: Eulyoo Publishing.
- Korea Foundation Database (2023). Map of the world's Korean studies. KF DB.
Available: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 Lee, Min Heui (2016). Trends and directions in Korean studies in Europe: focusing on Korean stud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CEESOK). EOMUNHAK-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34, 105-136.
- Park, I Mun (2006). The new direction and methodology of Korean studies: the conception of Koreanology as a science, and its methodology and the directio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40, 5-15.

Rhee, Jooyeon (2017). Korean studies in the middle east: focusing on Israel. *The Korean Cultural Studies*, 33, 263-285. <https://doi.org/10.17792/kcs.2017.33..263>

Shin, Eun Ja, Choi, HeeYoon, & Seo, Tae-Sul (2015).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journals for enhancing the global influence: An analysis on Korea 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159-177.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159>

Song, Min Sun (2015).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in Korean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125-157,
<https://doi.org/10.4275/KSLIS.2015.49.4.12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21.